



주 제:	“ 주님의 사랑 ”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2009년 6월 14일
복음 묵상:	[마르 14,12-16.22-26]	[출애 24,3-8]	[히브 9,11-15]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다. 예수님께서서는 1 독서에서 나오는 동물들의 피로 계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몸과 피로써 계약을 맺어주셨다. 또한 2 독서에서 말하듯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드셨고, 하느님께 보다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서 다른 무엇이 아닌 당신 자신을 바치셔서 만들어주신 하느님과 관계의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로 가는 양식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예수 성심 성혈동안 체험해야 할 거룩한 예수님의 마음이다.

파스카 양을 잡아 그 살로 배를 채우고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이스라엘, 파스카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하느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꺼이 그 파스카 양이 되어주셨다. 당신을 통해 살아갈 힘을 얻고 당신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양식으로 내어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사랑은 자신을 직접 던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렇게 자신을 직접 던짐으로써 다른 누구의 피가 아닌 당신 피로 계약을 완성해 주셨다. 이 계약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살과 피를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할 몫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다.

그 응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이웃에게 생명의 음식이 되어 주는 것으로, 밥이 되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밥은 저절로, 한순간에 되지 않는다. 밥을 짓기 위해서는 쌀을 씻어야 하고, 불을 지펴 끓이고 뜸을 들여야 한다. 실질적인 움직임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금 당장은 이웃에게 밥이 되어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밥이 되는 과정을 살아갔으면 한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직접 양식으로, 밥으로 내어주셨듯이, 우리 각자도 밥이 되어가는 삶을 살았으면 한다. 밥이 되어 주심으로 죽음마저 이겨 보이신 예수님. 우리도 사랑의 밥이 될 때,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계약의 완성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마르 14, 22) (수원 오정섭 신부님 강론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김인숙 세실리아 지휘자님은 6/21,6/28 두주일 동안 옐로스톤 여행과 산디에고의 방문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행중에 주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김효식 필립보네리 총무님은금주(6/14)에는 콜로라도에 가셨습니다. 편안한 여행되시기 바랍니다.
- 최철훈 베드로 형제님. 부친이 빨리 회복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를 청해주시고, 아울러 여행길 주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조성숙 리따자매님 6월 초에 돌아오신다는 연락과 함께 모든 성가대원들에게 안부를 전해오셨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이 계속적인 어렵고 힘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혼자서 힘든 투쟁을 하는 자매님을 위하여 주님의 자비를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교를 위한 여름캠프

일시 및 장소: 7/10(금)-11(토). Henry Cowell Redwoods State Park Campground.
 모든 성가대 가족들이 자연과 함께 따스한 모닥불 앞에서 오손 도손 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날은 모두 성가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 성심 대축일(6/19)은 왜 이동이 안돼는지?

예수 성심 대축일은 1673-1675년 사이에 수녀 마리아 알라콕은 여러차례 환시에서 그리스도는 성녀에게 성체 축일후 팔부내 금요일에 예수 성심 축일을 도입하고 예수 성심 금요일을 위해 성기간을 만들라는 임무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여 교회에서성체성혈 대축일후 금요일로 정하여 지내게 되었습니다.



무교절 첫 날에는 과일절 양을 잡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 날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께서 드실 과일절 음식을 저희가 어디 가서 차렸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성 안에 들어 가면 물둥이에 물을 길어 가는 사람을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 가거라.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 가는 집의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과일절 음식을 나눌 방이 어디 있느냐고 하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가 이미 자리가 다 마련된 큰 이층방을 보여 줄 터이니 거기에다 준비해 놓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떠나 성안으로 들어 가 보니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그래서 거기에다 과일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건네시자 그들은 잔을 돌려 가며 마셨다. 그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나의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 잘 들어 두어라.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 날까지 나는 결코 포도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 갔다.



1분 명상

♡'예수 성심의 약속♡



Pompeo Batoni, Sacro Cuore di Gesù, 1780

- 내 성심을 공경하는 자들의 지위에 요긴한 은총을 준다,
- 저들의 가정에 평화를 준다,
- 저들의 모든 근심 걱정중에 위로를 준다,
- 저들이 살아 있을 때와 특히 임종시에 저들의 의탁이 될 것이다,
-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에 풍성히 강복할 것이다,
- 죄인들은 내 성심에서 무한한 인자의 샘과 바다를 얻을 것이다,
- 열심한 자는 빨리 완덕에 나아갈 것이다,
- 내 성심 상본을 모시고 공경하는 집안에 강복할 것이다,
- 사제들에게는 극히 완악한 마음이라도 감화시키는 은혜를 줄 것이다,
- 내 성심 공경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내 마음에 새겨 없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 누구든지 9 개월 계속하여 첫 금요일에 영성체하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통회의 은혜를 주어 은총 지위에서 죽게 할 것이다,

예수 성심의 공경

(1) 예수성심 대축일 :

성체성혈 대축일 후 금요일을 축일로 정하고 배반 당하신 성심을 위로한다.
매달 첫 금요일에 미사에 참여하면서
예수의 수난과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팽개쳐져 있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보상하는 지향을 두고 영성체하기를 아홉달 동안 계속한다.

(2) 성시간 : 죽음의 고통에서 고민하신 예수의 수난에 관하여 묵상하거나 합당한 기도를 바친다.

(3) 예수성심 성월에는 특별히 예수 성심께 자신과 가정을 봉헌하고 기도를 바친다.
예수 성심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성심을 공경해야 한다.